

抱川文人協會 사무국요원 추가 선임 을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임관영)는 사무국(후원회 사무국 포함) 요원 추가 선임과 을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장에 화현초등학교, 포천고등학교, 관동대 행정학과를 나온 송계원 편집장(내촌면)회원을 임명했다.

또 김만중 후원회원(포천씨바이벌 회장)을 후원회 조직부장으로 위촉하고, 이동철 후원회원(포천씨바이벌 회원)을 총무부장으로 위촉했다.

장현곤 회원(의정부고등학교, 국민대 사학과 졸업, 현 포천의제21 사무국장)은 포천사람백일장 실무 추진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안종안 회원(유암초등학교 교장)은 현 민락초등학교 교장을 이사(아동문학)로 지명하고 이인용 회원(이

동면 거주)을 이사(시조)로 지명하기도 했다.

포천문인협회는 올해 하반기에 ▶포천문학 6집 발간(8월 5일 예정) ▶제3회 포천사람 백일장 개최(9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정) ▶백일장 시상식 및 시낭송회(9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예정)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의정부시무용단 맞춤형 공연 화려한 춤사위 불만

의정부호원중학교 학생들에게 선보여

의정부시무용단(단장 이미숙)이 지난 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호원중학교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연을 실시해 예술향수 확대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았다.

1시간 20여분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은 전통춤의 화려함과 우리가락의 빠르고 경쾌한 리듬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학생들에게 또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작품은 부채춤을 비롯해

장고, 북의 울림을 통해 민족적 화려함을 선보였고 <희룡의 울림>이란 작품을 통해 랩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한국음악의 빠르고 강한 메시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최고"를 외치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연을 마련한 의정부시무용단 이미숙 단장은 "학생들과 호흡하는 공연이라서 단원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공연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 기회가 되는데로 의정부 시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 마디씩 맞춤형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의정부예술의전당은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의정부시무용단이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호원중학교 학생들에게 맞춤형 공연을 선보이며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희용의 연극이야기(97)

生을 압축시킨 단막극을 경험하자.

희곡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장막극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작가도 단막극을 쓰지 않고 장막극으로 데뷔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한의 인물, 최소한의 무대조건으로 어떠한 인간의 주변과 인물을 묘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극작가의 표현이며 생의 단면을 공간에 정리하여 하나의 무대에서 커다란 인생을 보여주는 기술, 그것을 습득하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연극창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요즘은 한 두 편의 습작 같은 단막극을 쓰고 바로 장막극으로 도전하여 무모한 모험을 하는 사람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큰 극장에서 빨리 히트작을 내고 막대한 원고료에 눈이 어두워 기를 쓰고 삼부작 장막에 매달리는 작가 지망생들이 많은 것은 애처로운 현실이다.

연극은 그 극의 뼈대를 세우

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감동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 자체로 어려움이 있으며 상당한 수련과 많은 현장의 경험은 물론 많은 연극을 체험한 후에야 진정한 재주로 표출되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또한 작가 자신의 생각을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없이는 좋은 작품의 출현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극의 근원적인 문자로서의 바탕인 희곡, 단막극을 써서 많은 훈련을 해야만 보이지 않는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작품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어려운 기운이 예술가들의 뱃속에까지 파고들고 있는 고통의 현실에서, 모두가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의 씨앗인 비교적 가벼운 비용으로 극을 만들 수 있는 단막극의 가치가 재삼 새롭게 느껴진다.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일수록 그 속에서 작가의 나름대로의 정신과 상황이 조각조각 담겨져 있는 연극의 출현이 다시 시금 기다려지는 때가 되었다. 누구도 자신의 생을 놓고 장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생을 표현하고 경험하고 함께 하는 감동적인 마음의 흔들림을 체험하는 극의 세계로의 동참을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

한편의 새로운 연극의 관람은 모두가 견고있는 인생의 연극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조망할 수 있는 참여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싶고 삶의 의미 있게 살고 싶으면 연극의 관람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극장은 수준 있는 관객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를 발휘하며 지역적으로 자존심과 인정이 많은 우리지역 같은 사연 많은 고장 이용수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은 앞날을 위해 연로하신 어른들은 과거를



△ 이희용 포천 연극협회 회장 본지 지문위원

회상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생동감으로 어렵게 지어진 우리의 극장으로 모두가 나아가서 우리의 수준을 마음껏 보여주는 것이 제일 큰 숙제이다.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작가는 순수함으로 배우는 성실함으로 관객은 끝없는 애정으로 우리의 공연장을 지켜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29)

서예가 장포 박재교

포천초등학교 뒤편 골목 한 칸에 '이름 없는 집'이라는 뜻의 무호당(無號堂)이 고즈넉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곳은 포천에서 한글 판본체의 대가로 손꼽히는 서예가 장포 박재교의 서실이다. 명패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풍기는 예감이 서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한 묵향으로 구체화된다.

"인터뷰는 접어두고 차나 한 잔 하고 가라"던 장포 박재교는 역시나 사람 좋은 미소로 내방객을 반긴다.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기

진해의 육군대학 지휘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장교들의 손에 들린 붓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었다. 절도 있는 자세로 흰 화선지에 검은 빛을 물들이는 모습은 파편처럼 장포 박재교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제대 후 우연히 여동생 집에서 발견한 문방사우로 혼자 6개월 동안 가로긋기만 연습했다. 강의는 물론 교본도 없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였다. 그저 틈틈이 책방에 가서 서예인서사를 '눈동냥' 하는 것 뿐이었다. 물론 후에 홍익대 미술교육원과 서법학회(현 서법교육원), 경희대 대학원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독학을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을 터이다.

88년 포천에서 서실을 차리려는 데 모두가 반대

전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작업실에서 밤을 새워 가며 일하기도 했다. 덕분에 그에게 갖 시집은 신부는 그동안을 독수공방해야 했다.

장포 박재교 씨 현재도 포천시 아끼이름 지어주기 작명위원 활동, 포천시 여성회관, 도서관 등에 출강하며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서에도 변해야

장포 박재교는 "우리나라 서예인들도 이전 현대 서예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서예는 화선지, 먹, 붓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유화물감, 돌가루, 캔버스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다. 흑백을 넘어서 빨강과 노랑과 색이 다양

홀로 구축한, 그러나 누구보다 튼튼한 藝術世界

하고 나섰다. 포천만큼 유럽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는 "서실을 통해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했다. 다음해 그는 학생들을 선발해 한자교육을 시작했다. 첫 날 한시간으로 예정된 교육을 15분만에 마치고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나니 "오늘 단 한자만 배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천자 하나를 통해 파생되는 그, 대, 그 자 등을 함께 습득하는 파자교육을 시킨 것이라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학부모들도 납득했다. 무조건 외우는 교육은 피했고 무조건 쓰라고만 하지도 않았다.

이렇듯 장포 박재교는 세상이 정해 놓은 틀에 맞추려는 게 싫다. 뭔가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한다.

내 삶의 원천, 열정

또 하나 장포 박재교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근접하기 힘든 열정이다. 처음 서예를 독학했을 때의 그 열정은 전각을 배우면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서법학회에서 전각을 접한 후 제자를 두지 않기로 유명한 전각계의 이단자 현호 최규일을 만나 어게 너머로 '일도일각' 기법을 익혔고, 그 원조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유명한 제백석의 글꼴 교본을 놓고 몇 달을 혼자 공부했다.

또 91년 양로원 '모친의 집'을 돕기 위한 자서

하다. 심미성이 더 강조되고 예술성이 더 요구된다. 회화에서의 추상화 격이다.

장포 박재교는 "단지 서체를 배워서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세계인과 경쟁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대 서예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대인들도 더 이상 틀에 박힌 걸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원한다. 무엇보다 그는 "현대 서예가 훨씬 재미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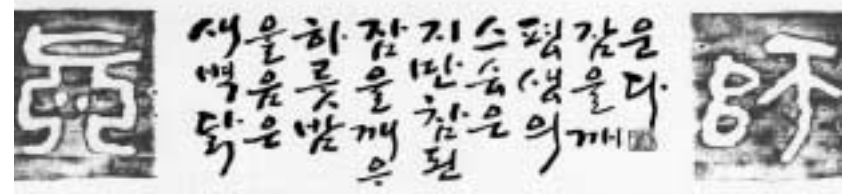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예를 배울 때 6개월 정도 확실한 기본 필법을 익힌 후 자기 글꼴대로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해 창의성을 키워줘야 한다. 더욱이 예술은 외롭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승화될 수 있기에 기존의 서법을 따라하는 전통서예보다는 현대 서예가 더 장려할 만하다.

대작 완성위해

장포 박재교는 7년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대작을 준비중이다. 바로 우리 고유의 천자문인 대동천자문을 우리나라에서 채취한 물 하나하나에 새겨 작품을 완성한 후 1000m정도의 전각집을 만드는 작업이다. 서양화를 전공한 부인과 함께 부부전을 개최하고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싶다는 작은 희망도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을 때 무호당에 들어선 지 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누구보다 긴 인터뷰였지만 진솔한 그의 입담에 지루한 줄 모르고 지난 시간이었다. 뒤돌아 나오는 길, 이름없는 집 외에 끝 없는 집이라는 의미도 지닌 무호당을 다시 한 번 바라보니 자신만의 세계를 연출하기 위한 예술가의 혼이 오롯이 느껴진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장포 박재교의 작품 眞師(참된 스승) 55x25cm

머리쪽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맥파를 조선온돌침대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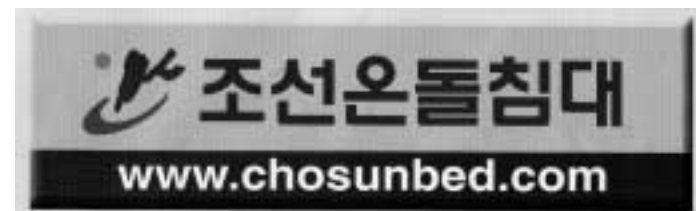
세계 제일의 침대를 만들어가는 기업

• 뉴블루밍 7122

- 원형기부본선: 유봉선, 보성명반석, 청명반석, 후문석, 황도명반석
- 보료용선1 (오베)가드: 특수슬라이드조절기+천연가죽/엔틱사일링단마감(가격 560만)
- 보료용선2 (SA등급): 일반사각조절기+천연가죽/엔틱사일링단마감(가격 510만)
- 보료용선3 (A등급): 일반사각조절기+사무드가죽(가격 460만)



조선온돌, 흙, 맥반석, 옥돌침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312-1 송우가구단지 TEL : 031)541-6114 H·P : 011-354-6485 대표 : 양주승